



9 788969 214829
ISBN 978-89-6921-482-9

장애인보도 영상 영양 가이드

목차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저술·편집	안문경
복디자인	이진실
ISBN	978-89-6921-482-9

개요

- 1 언론의 장애인보도
- 2 언론과 미디어수용자의 관계
- 3 언론의 태도
- 4 언론 카메라와 시선

제작가이드

- 5 장애인 관련 보도영상 분석
- 6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시선
- 7 보도와 관련 없는 영상제공
- 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터뷰 차이
- 9 장애 특성의 강조
- 10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촬영 기법
- 11 CCTV 장애인 영상 반복 활용

마무리

- 12 장애인 관련 긍정적 보도 사례
- 13 언론이 보는 장애인
- 14 언론이 제작해야 할 장애인보도 영상

1

언론의 장애인보도

장애인보도 영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보도 주제를
벗어납니다.



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여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언론과 미디어수용자의 관계

언론은 미디어수용자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갖도록 합니다.



미디어수용자는 언론의 보도를 읽고,
듣고, 보는 모든 독자와 시청자입니다.
미디어수용자는 언론의 카메라를
통해서 보도를 접합니다.



Designed by Freepik



장애인에 대한 **고정적인 보도 패턴**은
미디어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언론의 태도

누군가와 소통할 때
말하는 사람의 자세, 언어, 시선 등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눈 맞춤(eye-contact)과 시선(gaze)의 교환은
정보의 전달과 수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 유지와 경청



눈높이



Designed by Freepik from @storyset

시선 또는 응시는
우리가 눈을 고정하여 보는 행위 또는 그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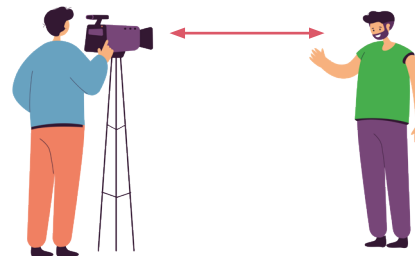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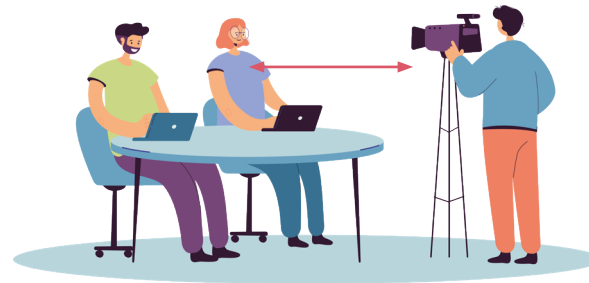


언론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4

언론 카메라와 시선

언론 영상보도는 카메라를 수단으로 하는 언론의 시선입니다.
언론 카메라가 응시하는 것은 곧 미디어수용자의 시선이 됩니다.
카메라 각도는 미디어수용자 시선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합니다.
카메라 초점은 미디어수용자가 보는 대상을 뚜렷하게 만듭니다.



보도영상의 구도, 각도, 움직임을 통해서
미디어수용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pch.v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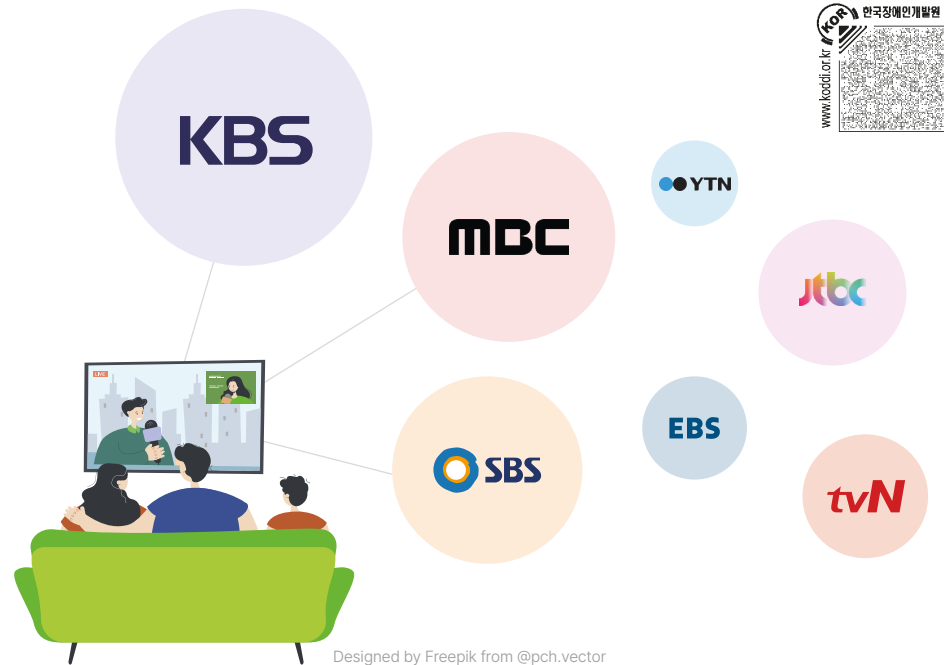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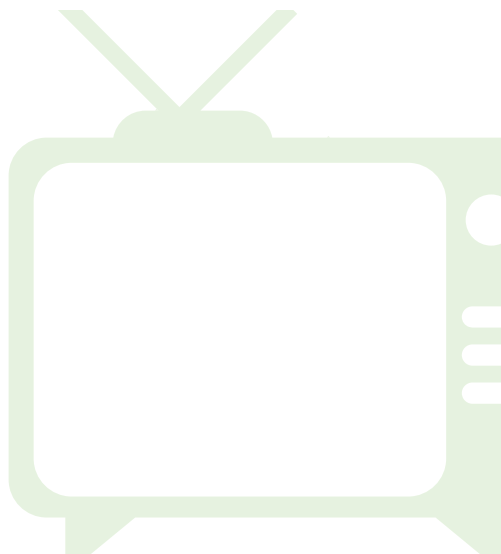


언론 카메라는 미디어수용자인 '나'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관련 보도영상 분석

보도영상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청자가 선호한 TV 뉴스 채널은 KBS, MBC, SBS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보도영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 3사 대표뉴스를 선정하여
2022년 8개월 동안 장애인 관련 보도영상을 모두 관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82개의 보도를 자세하게 추적하였습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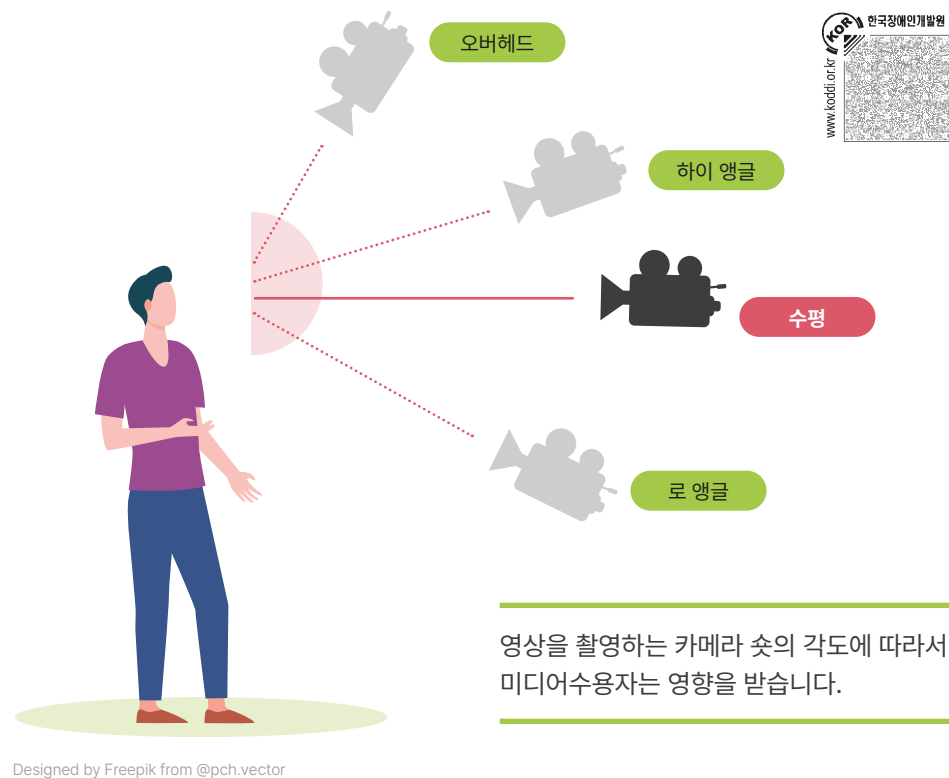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시선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는 **수평 샷**(horizontal shot)은 보도 대상과 수평의 시선을 만듭니다. 아동과 대화하는 어른이 무릎을 굽히는 이유입니다.

카메라가 보도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로 앵글 샷**(low angle shot, 양각 화면)은 보도 대상을 크고 강력하게 보이도록 하며, 지배·위압·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도 대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 샷**(high angle shot, 부감 화면)은 미디어수용자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보도 대상에 대한 무시·비하·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도 대상의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버헤드 샷**(overhead shot) 또는 **조감도**(bird's eye view)는 원근감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보도 영상의 배경 화면으로 보일 때는 생활의 불편함을 부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보도영상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인**임을 알려 주세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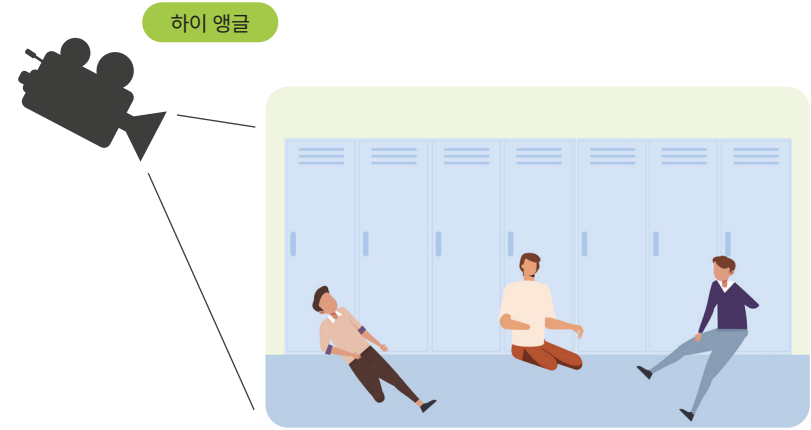
보도와 관련 없는 영상제공

카메라 샷의 각도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모습을 과다하게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바닥에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론의 시선, 특히 하이 앵글 샷으로 미디어수용자가 장애인을 낮은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pch.vector

장애인 폭행 피해 관련 보도에서 보도와 관계 없는 다수의 중증장애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피해 현장을 보도하면서 시설 목욕탕 및 체육관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노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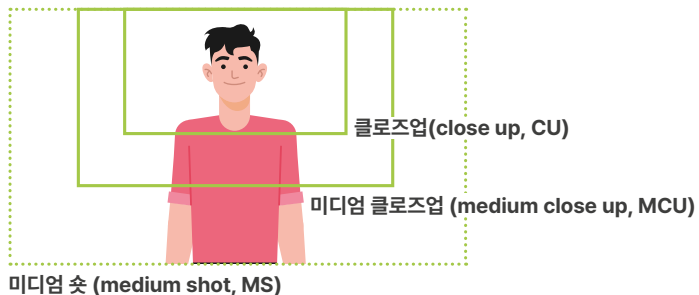


중증장애인을 촬영할 때도
보도 주제에 한정해야 합니다.

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터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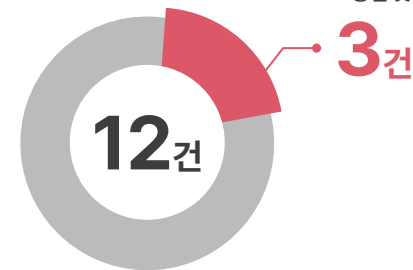
뉴스에서 인터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화면 사용이 표준입니다.
얼굴 위주의 클로즈업(CU)과 얼굴부터 가슴까지를 포함하는
미디엄 클로즈업(MCU)이 대표적인 인터뷰 화면입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pikisuperstar



비장애인과 장애인
동일 샷



샷 크기	장애인	비장애인
CU (얼굴, 특정부위)	3회	1회
MCU (얼굴~가슴)	8회	6회
MS (얼굴~상체)	3회	3회
MFS (얼굴~무릎)		
FS (전신)	3회	
EWS (전신, 배경)	3회	1회

비장애인을 인터뷰할 때는 MCU와 MS 화면이 주를 이루지만
장애인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2건의 보도영상 중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한 샷으로 인터뷰한 영상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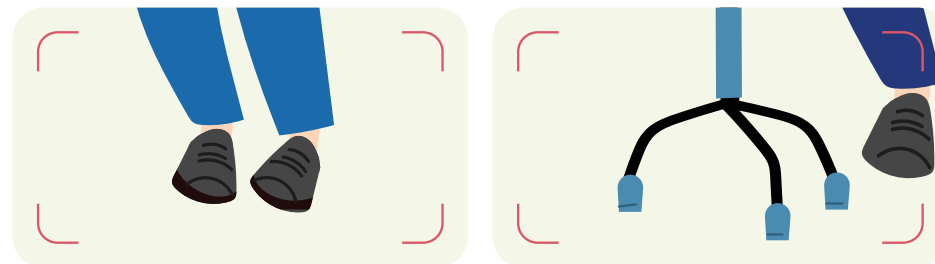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한 샷으로 인터뷰해야 합니다.

9

장애 특성의 강조

장애인 관련 보도의 주제는 장애 특성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 특성을 강조하는 보도영상은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보여주어
미디어수용자가 보도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장애 부분을 클로즈업(CU)하는 화면도
장애인 보도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클로즈업으로 인해서 미디어수용자는 장애에 대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정보를 보게 됩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upklyak

투렛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과의 동행취재에서 음성·양성 킥의 특성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보도 내용보다는 장애 특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을 취재한 보도에서는 불편한 손동작을 클로즈업하고,
영상을 장애인의 신체 아래에서 위로 이동시키며 장애의 불편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버린 아파트를 취재하면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변형된 신체와 보행 기구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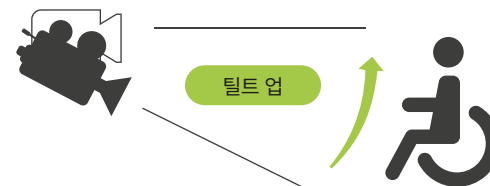
장애의 특성보다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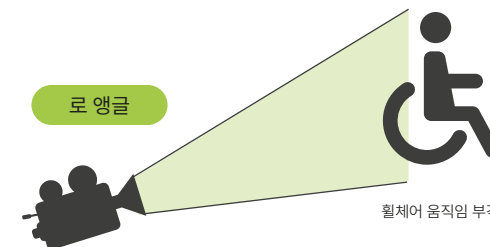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촬영 기법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촬영할 때
또는 휠체어의 이동 모습을 보여줄 때 정형화된 기법이 있습니다.
고정된 축에서 카메라를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틸트 샷(tilt shot) 중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틸트 업(tilt up)을
자주 사용합니다.

휠체어의 이동 모습도 역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지면 또는 무릎 높이의 로 앵글(양각) 샷으로 촬영하여
휠체어의 이동을 더 어렵고 불안하게 보여줍니다.
보도영상의 시점이 지면과 가깝기 때문에
미디어수용자는 속도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 관련 보도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보여줄 때 카메라를
틸트 업 하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다른 보도에서도
반복 사용하였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인터뷰 영상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휠체어 움직임 부각



타인이 나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카메라의 무빙**을 지양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불안정한 이동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제도와 기반 시설의 문제점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1

CCTV 장애인 영상 반복 활용

비극적인 영상의 보도로 가족과 주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미디어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를 위해 폭행 상황의 CCTV 녹화영상을 배경 화면으로 반복 활용합니다.
CCTV 설치구조로 인하여 미디어수용자는
비극의 현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자극적 영상으로 미디어수용자는 사회적 관음증(social voyeurism)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수용자는 학대와 폭력 영상을 처음 시청할 때
충격을 받지만, 반복해서 시청하면 공공 면역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미디어수용자가 보도에 무관심하고, 문제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

약자에 대한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욕은
불행을 유발하는 재난을 경시하는 태도이다.

애덤 스미스, 『도덕 감정론 (1759)』 중에서



Designed by Freepik from @pch.vector , @macrovector



장애인의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재가공 보도의 특성이 보입니다.
언론은 장애인이 학대받는 CCTV 영상 등을 긴급히 입수하였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에서는 이전 보도에서 사용한 동일한 영상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장애인 사망 사건 보도에서는 시설의 식사 시간에 학대당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노출하였고,
이후 재가공 보도를 반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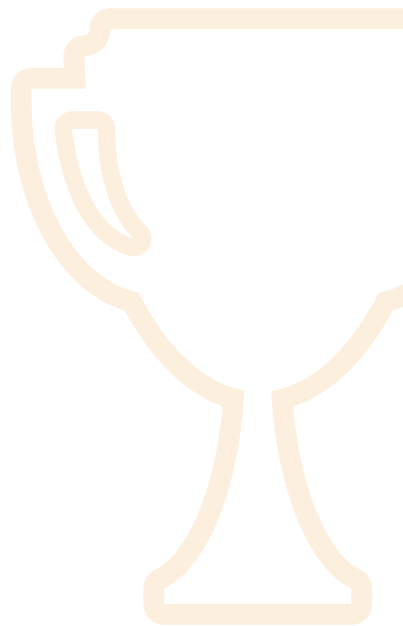
언론은 입수한 영상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관찰자여야 합니다.

비극적인 장애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관련 **후속 보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12

장애인 관련 긍정적 보도 사례

영상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마친 후
긍정적 보도 영상 사례를 1건 선정하였습니다.



Designed by Freepik from @pch.vector

이동 시설과 장애인 이동권을 다룬 보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하철 역사의 시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가동이 중지된 엘리베이터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였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노인 비장애인의 이동 모습을 동등한 비율로 비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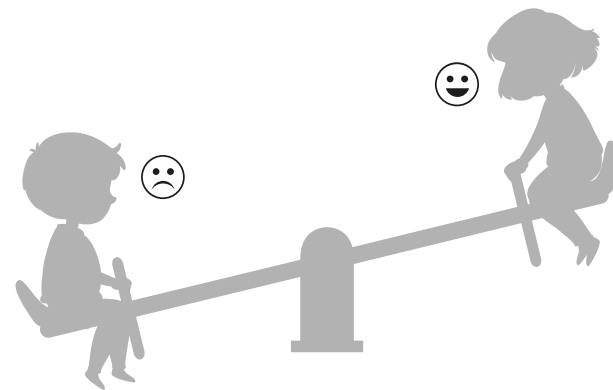
장애 특성에 대한 과잉 정보가 없고,
보도 주제와 관련된 영상 위주로 보여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도 비율을 동등하게 제시합니다.

13

언론이 보는 장애인

장애와 장애인의 불편함

- 비장애인과는 다른 말투와 동작
- 일상적인 이동(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 휠체어 이동의 불안정함
- 일상에 필요한 사회적 시설과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움
- 장애 과잉 정보의 피곤함과 심리적 거부감
- 영상의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장애인의 힘든 모습
- 비장애인과는 다른 기법의 장애인 인터뷰 화면
- 장애인 학대 장면의 선정성



Designed by Freepik from @brgfx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안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의 감정은
잘못된 SNS 문화와 결합해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이어지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정받으려는 뼈뼉어진 생각을 낳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언론 보도에서
부적합한 영상으로 비장애인을 안도하게 만든다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14

언론이 제작해야 할 장애인보도 영상

